

삼풍백화점 붕괴, 그 날을 되새기며...



이상구 대표이사
(주)이레구조기술사사무소

그 날을 되새기며...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있는지 꼭 8년이 지났다. 502명의 사망자와 엄청난 재산 피해를 초래했던 삼풍백화점 참사는 우리사회에 내재된 안전 불감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고였고 이와 같은 대형사고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제기와 처방이 쏟아져 나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묻혀 버리고 같은 재난이 반복되고 있다.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만큼 안전에 대한 의식도 높여야 할 것이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국가적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가를 배웠고 또한 체휼했다. 이러한 역량을 조금만 집중시킨다면 건강한 구조물을 후대에 유산으로 남길 수 있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인가-서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인간의 신체에 비교해보면 각종 전기·설비·배관 등은 신경조직, 혈관, 소화기관 등에 비교할 수 있으며 건물의 골조(構造)는 인간의 뼈대(骨格)와 비교할 수 있다. 뼈대가 인체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듯이 건물의 골조가 건물의 무게와 바람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지탱하고 있다. 건물의 골조도 인간의 신체와 마찬가지로 작은 질병이 크게 전염되듯이 처음부터 하자요소를 지니고 있다면 이 건물은 변형을 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 붕괴하게 된다.

이와 같이 건축에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바로 구조분야인데 사회적으로 그 인지도가 낮아 설계와 시공시 수반되어야 할 구조 관련 업무들이 건축종사자들의 이해관계나 힘의 논리에 밀려 비전문가에게 맡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502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이 참사는 세계적인 건설국가인 우리의 시공기술의 부족함도 아니고 선진국에서 입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구조형식(무량판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은 터더욱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와 같은 참사를 가져왔는가?

원인 분석-본론

첫째, 현실을 외면한 건축법

현행 건축법에는 층수가 16층 이상,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m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만 국가에서 공인한 구조 기술사(전문 기술자)가 구조계산을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삼풍 백화점을 비롯한 최근에 붕괴된 건물들은 모두 6층 이하의 저층 건물이고 기둥 경간도 대부분 10m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다. 이는 고층 뿐만이 아니라 저층건물도 구조기술사의 참여가 필요함을 현실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건물의 안전성 확보는 그 규모와 무관하게 중요하며 필수적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는 제도를 방치해놓기 보다는 하루속히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이 수반되도록 관련법규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둘째, 현행감리제도의 허점

인간의 뼈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양질의 영양이 공급되어야 건강한 신체골격이 형성되듯이, 건축물의 골조가 지어지는 현장에서 튼튼한 골조가 되도록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이 감리업무이다. 하지만 각 분야별 감리중에서 특별히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조감리제도가 배제된 이유가 무엇인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안전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단지 서류를 챙기기에 바쁜 감리자라면 이미 진정한 감리자라 할 수 없고 생명의 안전을 방치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관계기관은 하루속히 구조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53조에 추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할 것이다.

셋째,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

구조분야는 관련 당사자들 외에 일반시민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 다만 재난에 노출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일반인에게도 구조안전의 중요성을 얘기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구조설계 및 감리는 시장 논리에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기로 유명한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선진국들은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한 결과 이러한 구조전문가의 설계 및 감리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마지막-결론

근자에 언론 매체에서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언급하고 있다. 외국을 여행할 때마다 선진국의 갖대는 물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질서의식, 안전의식,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적 제도와 같은 것들이 바탕이 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얘기하기에 앞서 위에 언급한 제도적 모순점들을 검토하고 개선할 때만이 제2, 제3의 삼풍 참사가 없는 균형 잡힌 선진국가로의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